

LG전자, 테네시에 세탁기 공장 준공

미국 테네시주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세계 최대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본격적인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 LG전자 테네시 세탁기공장 전경 ©LG전자

지난 30일 '뉴스핌'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 클락스빌에서 'LG전자 테네시 세탁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대지 125만 제곱미터(m²), 연면적 7만7천 제곱미터(m²)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투자금액은 3억6천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 2017년 8월 착공식을 가졌던 테네시 공장은 증가하는 미국 현지 세탁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테네시 공장은 LG전자의 첫번째 미국 현지 생활가전 생산 공장이다. LG전자는 미국의 비싼 인건비와 향후 자동화 추세를 감안, 이 공장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지었다.

이에 따라 금속 가공, 플라스틱 사출 성형, 도색 등 부품 제조라인부터 각종 부품들을 표준화된 모듈로 만드는 모듈 조립라인, 세탁기를 완성하고 포장하는 생산라인까지 원스톱(one stop) 통합생산체계를 갖췄다.

이밖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동으로 주문하고 공급해주는 '부품공급자동화시스템(SPS: Set Parts Supply)' 및 자동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포장자동화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구현했다.

현재 가동중인 2개의 생산라인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될 드럼형 세탁기와 통돌이형 세탁기를 생산하며 올 연말쯤 완전 가동이 되면 10초에 세탁기 한 대씩 생산되는 연간 12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LG전자는 테네시 세탁기 공장 이전의 경남 창원시의 세탁기 생산공장을 양대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 등 관세 장벽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017년 2월 테네시주 정부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나섰다.

“무역전쟁, 중국보다 미국 일자리 더 줄인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관세전쟁은 미국 제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전 미경제연구소(NBER)는 이날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상대국에 관계없이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미국이 상대국과 상호 30%, 45%, 6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 관세전쟁이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 EU와 관세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상대국보다 더 크게 줄었지만,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는 상대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30% 관세율을 적용할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2.64%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0.55% 줄었다. 관세율이 45%, 60%로 상승하면 미국 제조업 고용은 각각 3.33%, 3.81% 줄지만, 중국은 0.70%, 0.8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이 수입 관세 외에 운송 비용, 언어 장벽, 제도적 장벽 등 비관세 무역 비용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 비율이 중국보다 높았다. 이 경우 30% 관세율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4.24%, 중국은 1.01%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제조업 고용을 지키려는 미국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소망은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했다.

3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1년전 대비 3.7% 상승

미국의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뉴시스'는 전날 발표된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미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올랐다고 전했다.

앞서 2월의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9%, 1월의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2%,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7%가 각각 상승했었다. 상승폭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미국 10대 도시의 3월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3% 올랐다. 앞서 2월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6% 상승했고, 1월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는 1년 전에 비해 3.1% 올랐었다.

미국 20대 도시의 3월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7% 상승했다. 앞서 지난 2월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 올랐고, 1월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5% 상승했었다.

지난 3월 미국 20대 도시 중 1년 전과 비교해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라스베이거스(8.2%)에 이어 애리조나주 피닉스(6.1%)와 플로리다주 탬파(5.3%) 순이었다.

서부지역 도시들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워싱턴주 시애틀의 경우 3월 주택가격지수가 1년 전에 비해 1%를 웃도는 데 그쳤다.

플러튼 / 라미라다 / 헌팅톤비치 / 부에나파크 / 실비치 / 스텐튼 / 로스알라미토스 / 파운틴벨리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브레아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싸고 좋은 매물들을 로즈메리가 찾아드립니다!

가든그로브 (콘도)

SOLD
 방3/화3, 건평 약 1,760sf
 넓고 리모델링이 잘 된집
 2년된 새지붕
\$524,000

사이프레스 (콘도)

SOLD
 방2/화2, 건평 약 1,000sf
 2002생 새집 같음
 아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480,000

스텐튼 (콘도)

 방3/화2.5, 건평 약 1,270sf
 새 마루바닥
 공원같은 분위기
\$429,000

스텐튼 (콘도)

 방2/화 2.5, 건평 약 1,300
 2009년생
 완전 리모델링, 나무바닥
\$495,000

부에나 파크

 방 3/ 화2, 건평 1,690sf
 새마루바닥
 매력있게 단장된 집
\$600,000

라미라다

 방3/화2, 건평 약 1,320sf
 라미라다 골프장, 한인마켓가까움
 새로 단장된 예쁜 집.
\$560,000

라미라다

 방5/화2, 건평 2,500sf
 리모델링된 집, 좋은학군
\$599,000

로스 알라미토스

 방3/화2, 건평 약 1,730sf
 최신형인테리어,
 전기차 충전기, 최고학군
\$829,000

파운틴 벨리(콘도)

 방3/화 2.5, 건평 1,650sf
 새 카펫, 이중창문
 쾌적한 주변환경, 최고학군
\$600,000

코로나

 방4/화 3, 건평 약 1,730sf
 완벽한 리모델링
\$430,000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O.714.537.1111
 realtorrosemary3819@gmail.com